

일년에 단 한번만이라도

물자 세상보기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1개 공공부문 노조가 공기업 민영화 철회,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노사관계에 다시 먹구름이 일기 시작했다. 한국전력 노조도 파업을 유보하긴 했지만 파업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국민은 노사와 정부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 이제는 정부와 재계, 노동계가 합심해서 21세기의 모범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노사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자.



노사협력

“화합은 공동체 지탱 근원”

■ 많은 사람이 한데 모여 살아도 서로 잘 이해하고 동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정한 우정이 생기지 않는다. 진정한 생활 공동체에서는 그 구성원 모두를 묶어주는 신념과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믿고 화합하는 것이 보통이다. 진실로 화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동체나 조직체를 지탱해 나가는 근원이다. <대반열반경>

■ 고용주는 고용인을 대하되 다섯 가지 일에 힘써 존경하며 부양해야 한다. 다섯 가지란, 첫째 힘에 알맞게 부리며, 둘째 음식과 급료를 적절히 지불해야 하며, 셋째 때에 따라 수고로움을 위로해 주어야 하며, 넷째 때때로 휴가를 주고, 다섯째 병이 나면 치료해 주도록 한다. <선생자경>

■ 고용인은 고용주를 위하여 다섯 가지에 힘써야 한다. 주인보다 일찍 일어나 그가 부르지 않도록 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찾아 하도록 해야 한다. 또 주인의 물건을 가져서 버리거나 도둑맞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인이 출입할 때 항상 예절로서 대해야 하며, 주인의 착한 점을 말할지언정 나쁜 점을 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가라윳육방경>

■ 주인은 노비나 종들을 다섯 가지로 대우해야 한다. 마땅히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어야 하며, 병이 생겼을 때는 당연히 의사를 불러 치료해 준다. 함부로 때리지 않으며, 노비의 사유 재물을 빼앗지 말고, 물건을 나누어주되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 <시가라윳육방경>

■ 공은 것을 남에게 양보하고 잘못을 이끌어 자기에게 향하게 하면 다툴 것이 없어진다. <열반경>

■ 거친 말을 말리함으로써, 나를 해치고 남을 해쳐 서로가 함께 해 가는 일을 면하고, 좋은 말을 익힘으로써 나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해서 남과 내가 널리 이롭도록 해야 한다. <대아미타경>

■ 보살은 길을 가면서 두 가지를 행해야 한다. 매우 더울 때와 비가 올 때에는 나무 그늘이나 집이 있으면 남에게 먼저 앉으라고 양보해야 한다. 또 우물이나 샘물이 있거나 타인이 물을 가진 것을 보았을 때에는 남에게 먼저 마시라고 양보하는 것이다. <보살내계경>

■ 부처님께서는 교단의 발전을 위해 일곱 가지 법을 말씀하셨다. 첫째 서로 자주 모여 정의를 강론하라. 둘째 상하가 하나로 협력하여 공경하고 뜻을 어기지 말라. 셋째 법을 받들고 금할 것을 금하여 제도를 어기지 말라. 넷째 스승을 받들고 섬겨라. 다섯째 마음을 닦되 효도와 공경을 우선으로 하라. 여섯째 계행을 닦아 욕심과 감정을 치우치지 말라. 일곱째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뒤로하며 명예와 이익을 먼저 내지 말라. 그리하면 법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장야합경>

집안이 떠돌며 구걸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길인이나 거지라 한다. 요즘은 미국식으로 홈리스(Homeless)라 부르는 경우도 늘고 있다. 집도, 마음을 다둬겨주려 가족도 없이 거리를 떠돌며 추위와 주립에 시달리는 입장이다. 다를 바 없었지만 그래도 '길인'과 '홈리스' 사이에는 무언가 다른 느낌이 있다.

‘길인’이라면 전통사회 구성의 한 구성원으로 그림 그려지고 그들의 다양한 역할 또한 떠올릴 수 있는 반면, ‘홈리스’라면 서구의 왜곡된 산업화 사회가 낳은 도시의 무기력한 부랑인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옛 초가집과 길인들의 움막에 비한다면 최대의 편의와 안락을 고려해 지어진 현대 도시주택, 그 담장밖 거리에 내팽개쳐진 홈리스들과의 안과 밖 대비는 너무나 극명하다. 초가와 움막 사이의 담장은 그다지 높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쉽게 열렸겠지만

현대 도시주택의 문은 비정하게도 타인 앞에 쫓겨 열리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IMF 이후, 그리고 최근 또 다시 늘고 있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부랑인들은 ‘홈리스’라 불러야 할 것 같다.

반이면 지하철 공간이 비좁을 정도로 모여든다는 ‘홈리스’들은 우리들의 불우이웃이 지금 그만큼 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 가운데는 실적으로 자녀들을 고아원에 맡기고 한 번도 찾아보지 못한 아버지도 있을 것이다. 고아원과 양로원의 수용인구도 자연 늘어날 수밖에 없다.

12월에 접어들면서 연례행사처럼 불우이웃돕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불교에서 이웃을 돕는 일은 보시에 해당할 것이다. 삼륜청정(三輪淸淨)의 보시는 보시의 세 가지 요소, 즉 주는 쪽과 받는 쪽 그리고 ‘주는’ 그 무엇이 깨우쳐야 한다는 가르침

“한해 마무리 하며 이웃 돌봄은 뜻있다”

자선에서 인간애로 서구 이웃돕기 새흐름

이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어야 하는데 만약 ‘내가 주었으니 내게 감사해야 한다’는 마음이 생긴다면 보시가 될 수 없다. 주는 이나 받는 이 모두 나와 남의 경계가 없어야 한다는 뜻이리라.

다음, 자신에게 소용없는 물건이 아닌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물건을 아깝다는 생각없이 줄 때 그것을 보시라 할 만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



김정자 본지 논설위원

실적인 이웃돕기는 보시라기보다 자선이란 단어가 더 합당하다. 다소 배기면서 마스크에 이름을 내며 부자가 큰 돈을 내도 좋고, 필요없는 물건이나 넘치는 것이 있으면 이를 요긴히 쓸 수 있는 사람에게 한시 빨리 넘겨주는 것이 좋다. 그런 자선이 차츰 승화되면 보시정신으로 발전할 수 있을 테니까.

자선이란 체리티(Charity), 이른바 기독교적인 사랑으로 지금껏 서구사회를 지탱해 온 단어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이맘때쯤이면 서구사회 곳곳에서 체리티 파티가 열린다. 하지만 요즘은 필란트로피(Philanthropy)란 단어를 많이 쓴다. 이는 그리스어

의 인간애란 뜻으로 밖에 가깝다. 자선이란 단어에는 시혜(施惠)라는 의미가 있어 어딘가 위선적인 냄새가 나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서구사회에서도 이웃돕기가 자선에서 인간애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인간애가 좀더 발전한다면 아마 보시정신이 될 것이다.

구세군의 자선비비 종소리로 시작되는 연말의 자선행사를 의례적인 일회성이라 하여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자선이란 일년, 아니 평생을 두고 자기가 가진 것을 ‘없는 이웃’과 나누는 일이라는 뜻에서 나온 비판인 것이다.

하지만 한해를 마감하면서 자신을 돌이켜보고 어려운 이웃을 한번쯤 생각해 보는 일 또한 의미 없지는 않다. 일년에 단 한 번의 자선을 시작으로 언젠가 ‘보시정신’을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니까.

독자의 소리

노숙자 시설 재정난 자비문중 외면 말라

불교계 노숙자 시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대불교신문 기사를 보았다. 재정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보고만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자비문중임을 자처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은 부처님의 뜻과도 어긋난다.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우선 큰 사찰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단위별로 몇몇의 사찰들이 노숙자 시설 한 곳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사찰 입장에서 보면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종단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물론 종단이 어느 정도 재정적인 여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어렵더라도 조금만 마음을 내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불자들의 후원금 모음이든 많은 불자들이 동참할 수 있는 모금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장경숙·서울 서대문구 흥제동>

‘다른종교 존중하자’ 불자부터 먼저 반성

얼마 전에 귀가하는 길에 택시를 탔다. 그 택시 운전사와 얘기를 나누게 됐다. 그 택시 운전사는 자신을 교회 집사라고 소개하면서 나라가 어려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건넸다.

그러면서 “혹시 교회에 가지 않느냐”고 물었다. 나는 정중하게 “잘에 다니는다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그 운전사는 반가운 표정으로 잠시 뒤를 돌아보며 “어이구, 그러십니까. 좋은 곳일 다니시네요” 하면서 “잘에 다니시는 분들도 우리처럼 걱정이 많으시죠?”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사실 나는 해를마다 뭐다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불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분노까지 치밀 때가 있었다. 그러나 이 운전사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던 그런 기독교인이 아니었다. 다른 종교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10여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택시 운전사는 몇몇 기독교인이 잘못을 한다고 해서 모든 기독교인을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본 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되돌아보게 했다. <박영길·경기 안산시 중앙동>

월정사 등산로 전화 관리 못할바엔 철거

3주전쯤 강원도 월정사에 오르다가 너 구리가 앉아 있는 모습의 ‘효’ 전화를 보았다. ‘효’ 전화를 보면서 현대인들이 잊고 사는 효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해 마음이 뿌듯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전화기는 간 데 없고 쓰레기만 잔뜩 쌓여 있었다. 어떤 이유로 월정사 오르는 길에 이 전화가 설치됐는지는 모르지만 사할에 오르는 산뜻한 기분이 반감됐다.

그 지역의 공공기관에서 설치했는지, 아니면 월정사에서 설치했는지는 모르

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바에는 철거하는 것이 낫다. 이런 흉물스런 풍경은 사찰과 어울리지 않는다. <김경연·서울 노원구 상계동>

불자다운 신행생활 초심자·일반인 ‘감화’

며칠전 포교사교시에 응시한 동산불교대학과 무불선원에 나가는 불자다. 포교사 교시를 준비하던 중 마음을 다잡기 위해 지난달 불은사의 대학입시생을 위한 3천배 철야정진에 동참했다. 신도들이 많아 겨우 자리를 잡고 자정까지 1800배를 하고 나서 잠깐 쉬고 있자니 추위와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회사일로 파로를 한 탓인지 몸을 주체하기 힘들 정도였다. 그때 자사의 합격을 기원하며 열심히 정진하던 한 보살님이 음료수와 과일을 챙겨주시며 격려해 주셨다.

그 보살님의 자비스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문득 지난 여름 수덕사에서 3천배 정진했을 때의 일이 생각났다. 정진을 하다 자정이 다 됐을 무렵 주위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이 혼자였다. 그때 경내를 살피던 한 스님이 난감해하는 내 표정을 보고는 아무말없이 부처님께 절을 하기 시작했다. 아침에불시간까지 나는 스님과 함께 정진을 했다.

불교의 길모습만 알고 부처님의 참모습을 보지 못했던 내 자신에게 그 스님과 보살님은 참모습이 되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었다. <김시우·시우통상주식회사 대표>

기고

“옴니반메홀” 깨달음의 경지 향숙한 진언

얼마전 드라마 ‘왕건’에서 육자진언 ‘옴니반메홀’이 잘못 표현된 데 대해 종단 홈페이지나 KBS 게시판에 비판의 의견이 뜨겁다. 육자진언 ‘옴니반메홀’을 잘 모르는 일반 시청자들로 하여금 이 진언이 드라마에서 중세가 흑세무인할 때 사용하는 요사스러운 주문이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대해 드라마 ‘왕건’ 제작진은 육자진언 옴니반메홀은 불교에서 가장 수승한 진언으로 인식하고 있음(제6회 방영분)을 이미 밝힌 바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원래 ‘옴니반메홀’은 육자대명왕진언(六字大明王眞言)이라고 하며, ‘여섯 자로 된 최고의 진언으로 불리고 있다. 이것은 깨달음의 심경을 즉시적으로 표현한 진언 가운데 가장 보편적이고 으뜸이 되는 진언이라는 것이다. 육자진언은 ‘온 우주(Om)에 응하여 있는 지혜(mani)와 자비(padme)가 지상의 모든 존재(Hum)에게 그대로 실현되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육자진언은 수많은 세월 동안 많은 수행자들이 지속적으로 체험하여 축적된 깨달음의 경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소리이며, 이로 인해 육자진언 영송의 공덕이 수승하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연구로는 육자진언은 10세기 경에 현존의 형태로 완성이 되었으며 우리나라에는 고려종기(1157)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육자진언이 가장 널리 신앙이 되고 있는 곳은 티베트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범종, 향단, 단청 등에 새겨 넣었으며, 일상의 신앙생활에 가장 많이 행해진 진언중의 하나였다.

이러한 육자진언 ‘옴니반메홀’의 본질이 드라마 제작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왜곡되게 전달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어떤 형태로든지 드라마 속에서 자연스럽게 육자진언의 본질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연출력을 기대한다.



무외정사 (진각종 포교부장)

행운의 벽조목

옛부터 우리 조상님들께서 가장 신비한 나무라 고전 해 내려오고 있는 벽조목은 세상에서 돌도 없는 天下의 행운의 보물입니다.

여기 소개되는 이 벽조목은 수百年 묵은 大木으로 총목 음성군 원년면 상노리 소재 1950년 7월 하순경 벼락 맞은 것을 베어서 지금까지 보관해오던 귀중한 진품으로 인연 있는 분들이 평생동안 소장하실 수 있도록 목걸이, 도장, 낙관, 염주, 단주 등으로 제작하여 보급합니다. (점안이 필요하신경우 점안도 가능)

벽조목은 각종 질병, 사업의 경제난을 겪고 있으신 분, 입시, 승진시험과 소원성취를 염원하는 분에게 장귀를 막고 행운을 준다 하여 국어 사전과 백과사전에서도 행운의 벽조목이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진품만이 그 효능을 발휘하는 이 행운의 벽조목은 항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인연 되는 분에 한해서 공급합니다.

홍련암 02) 909-1360
공덕하법사 011-9778-2803

레이키(Reiki)법이 왜 화제인가?

드디어 『박희준식』 레이키(Reiki)법을 확립해 국내외에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 누구나 그날부터 氣力(키리)가 될 수 있습니다. -

레이키(Reiki)는 우주 창조와 만물의 조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근원적인 사람의 생명 에너지이며, 이것을 질병의 치료와 생활의 다방면에 이용하는 법이 레이키법입니다.

이법을 처음으로 발견하고 개발한 사람은 일본의 우스미 카오(1865-1926년)씨인데 현재는 미국을 거쳐 세계로 보급이 확대되어 전세계에서 1억명 이상의 인구가 이미 이것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세계 1백개국에 보급되고 있는 21세기 ‘氣의 과학’이기도 합니다.

레이키법에는 어떤면이라는 비법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날부터 氣力(키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박희준)는 동양의 天人相應의 원리를 이용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마음 수련에 힘쓰는 결과 이 능력을 더욱 높여 세계 끝지의 어떤면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슨 병이나 잘 나을 정도로 힐링 파워(치료 능력)도 높아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공수련을 했어도 氣力(키리)가 되지 못했던 분이나 더욱 치료능력을 보강하고 싶은 분은 주저 말고 오십시오.

교육대상 : 의료 건강 분야 종사자, 호스피스 봉사자, 환자나 그 가족, 일반 국민

교육단계 : 제1-3단계, 3일정도 소요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50만원으로 가격 인하 단행!

현대생활 레이키연구회
전화 : 02) 720-5682/725-2311 팩스 : 725-2312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Reiki.co.kr

편리하고 利(LI) 기쁨주는 喜(HL)'S LIHIS양말이 여러분앞에 인사드립니다.

■ LIHIS 건강 지압 양말

- 건피부 (특히 발이 갈라 지는 분)
- 피부노화 방지
- 숙취 해소

건강지압양말 특허출원번호 0043150 LIHIS

■ LIHIS 건강 슷 양말

- 원적외선 차단
- 음이온 발생
- 당뇨·혈압이 더 이상 오르지 못함

건강스킷양말 실용신안번호 0165970 LIHIS

상담문의

제조원 (주) 화동섬유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321-116 053) 582-1244~5
전남북 대리점 062) 956-7676~7
동대구 대리점 053) 982-4976
대구 대리점 053) 252-6966
인천·경기대리점 032) 765-4445

입방안내

금강선원 선문장은 재가불자들을 위한 참선수행 정진도량입니다.

일년내내 개방하며, 수행일정은 수행자 본인의 자유의사대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입·출소가 자유롭고,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수행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혜거스님의 법문과 개인 상담이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선수련원 禪門莊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화상대 1리
전화 033) 433-5845~6